



이셔의 武器店

〈The Weapon Shop of Isher〉

반·보그프(Alfred Elton Van Vogt)

徐 光 云 譯

(韓國SF作家클럽會長)

1951년 미국의 어느 도시에 느닷없이 있을법하지 않은 무기상점이 생겼다. 신문기자 마카리스터가 들어가 보니까 이 상점은 이서왕조 기원 4784년이라는 7천년의 미래로부터 되돌아온 무기점이었다.

이서帝國의 에너지 공격을 피하여 일시적으로 20세기의 미국으로 옮겨온것. 그 에너지 공격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제국측의 건물과 마카리스터의 몸이 時空을 초월한 업힘을 거쳐 마카리스터의 몸에는 거대한 시간이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

이서제국의 시골인 그레이마을에는 여왕폐하의 충신을 자처하는 화라·클라크라는 원자모터 수리업자가 있었다.

화라의 아들 케일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청년이었다. 그는 무기상의 딸 루시에게 반하여 그녀의 뒤를 쫓아 제국의 서울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수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공갈을 맞아 주머니돈을 훌쩍 털리고 만다. 제국군대령의 술주정을 보고 또 공갈범에 가담하는 승무원의 비행을 목격한 끝에 케일은 제국의 부패상을 새삼 깨닫게 된다.

케일은 실은 천재적인 策謀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 김새를 안 루시는 무기점측의 관찰요원이었다.

수도에 도착한 케일은 〈1錢팔레이스〉라는 도박장에서 용돈을 따낸 후 비행기 속에서 만난 대령과 면회한다. 대령은 5천 크레디트를 준비하면 소위로 임관시켜주겠다고 매관을 꼬셨다. 그때 마침 여왕 이벨다가 대령에게 TV 전화를 걸고 케일에게 물었으나 케일은 매관권유를 숨겨주었다.

케일은 다시 〈1錢팔레이스〉로 발길을 옮겨 천재적 책모능력을 발휘하여 큰 돈을 가무린다. 그런데 〈팔레이스〉측은 50만 크레디트를 챙긴 케일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어딘가로 납치해 간다.

무기상점 안에서 중견의 자리를 차지한 헤드록은 루시의 상사이며 실은 不死人이었다. 이때 케일의 행동을 감시하던 루시로부터 보고가 들어온다.

케일이 연행된 곳은 환각제로 悅樂을 즐기는 이른바 〈환각의 하우스〉인듯. 케일에게 마음이 쏠린 루시는 케일의 행선지를 찾아내서 케일과 맞닥뜨리지만 불안간 경찰관들이 들어닥치는 바람에 두사람은 하릴없이 헤어지고 만다.

그레이마을에 있던 화라에게 은행으로부터 느닷없는 전화가 걸려와 케일에게 빌려준 돈이라면서 1만 크레디트이상이나 청구된다. 화라는 부당하다고 재판소에 호소했으나 敗訴하고 만다.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하려고 무기점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공간수송기로 무기점의 정보센터로 보내진다. 정보센터에서 은행의 사기행위가 드러나 돈은 되돌려 받았는데 한편으로 帝國의 부패상을 체크하고 있는 무기점의 기능이 밝혀지고 만다.

〈환각 하우스〉에서 사라진 케일은 화성에 보내졌었다. 그는 화성의 은행에서 1천달러를 빌어 지구로 향했는데 도착해보니 루시는 결혼하게 됐는데 그녀의 남편은 바로 케일 자신이었다.

헤드록은 루시의 보고를 받고 케일의 주변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화성에서 돌아온 케일은 제국군에 임관하고 몸에 배인 策謀능력으로 여왕에게 접근한다. 그리하여 미래와 과거를 몇달 간격으로 엮어주는 문제의 에너지 공격에 사용된 건물로 들어가서 과거로 되돌아가고 만다.

그리하여 증권거래로 벼락부자가 되어 루시에게 청혼하고 화성에서 돌아오는 자기의分身을 기다린다. 들어서 승心하여 <1錢팔레이스>에서 50만 크레디트를 강탈, 이를 자기의分身에게 넘겨 준다. 이것이 바로 과거로 되돌아 갔을때의 밑천이 되는 것.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헤드록은 시간이 얽힘을 멈추도록 무기점의 집행위원회에 제안, 그일이 받아들여진다.

한편 마카리스터는 아득한 미래와 머나먼 과거를 내왕하고 있는동안 20세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단념하고 만다. 몸안에 축적된 시간에너지가 폭발하여 이 우주의 아득한 옛날의 成因이 되려고.

헤드록은 무기점을 기만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제국군의 대위로 임관, 여왕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왕은 헤드록을 미심쩍게 여기고선 체포하려 한다.

한편 무기점측도 헤드록의 과거가 석연치 않은 점을 눈치채고 출신성분을 캐고 있었다.

사면초가가 된 헤드록은 실은 여왕이 항성간 동력의 비밀을 손에 넣은 듯한 낌새를 말고 이를 쫓고 있었다.

그가 찾아낸 곳은 빌딩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진 항성간 로키트였다. 비밀실험비행을 했을 때

발명자를 딴 항성계에 내려두고 도망해 온 악당들이 이곳에서 로키트를 수리하여 여왕에게 팔아 넘기려 하고 있던 참이다.

건물을 공격하기 시작한 제국군의 헛점을 쫓고 헤드록은 소형항성간 구멍정을 타고 탈출한다. 거대한 중력에 못이겨 까무러친 그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니 까뽀는 우주에서 미아가 되고 있었다.

거기서 헤드록은 높은 수준의 知的생물 <거미족>에 붙잡히고 만다. 그들은 물질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을만큼 지능은 뛰어났지만 사람의 감정에 흥미를 느끼고 헤드록을 대상으로 이를 알아 내려고 한다.

마침내는 지구로 되돌려보내진 헤드록은 항성간 동력의 공개를 둘러싸고 다투는 여왕과 무기점 사이에 끼어든다. 제국측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 거인으로 둔갑하여 도시를 습격하고 한편으로 헤드록대위로 정장하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여왕의 救愛를 받는다.

제국측과 무기점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헤드록은 不死身으로 이서왕조의 초대황제였던 동시에 무기점의 창설자이기도 했고 이서왕조의 몇 10세기에 걸친 역사의 마디마디에서 여왕과 결혼하고선 자기의 핏줄기를 질게해 왔다는 사실이다.

여왕은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는 몸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서의 혈통을 이어주기 위하여 헤드록의 아이를 낳으려고 애쓴다.

헤드록의 행동을 통하여 지구인의 감정을 관찰해 온 <거미족>은 끝내 他愛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채 한가지 결론을 내렸다. 인류야말로 장차 이 마을우주의 지배자가 되리라고.

작가와 작품

작가 반·보그트는 1912년 홀랜드인 양친 아내서 캐나다의 위니베그에서 태어났다. 학교공부를 마친후 여러 직업을 가지면서도 소설을 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1939년에 <우주선 비글호>에 이어<검은파괴자>로 SF계에 데뷔.

그후 10년동안 캔벨이 편집한 아스타운딩

誌에서 활약. 본편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부 <무기제조업자>가 1943년 아스타운딩誌에, 제1부 <이서의 무기점>은 49년에 슬리링, 원더誌에 발표된 것.

이밖에도 <非A의 세계>, <원자제국>, <우주폭풍의 저편>등 모험적 요소가 짙은 작품이 많다.